

기계번역의 외연 확대 - 신문기사 특정 은유표현 포스트 에디팅 전략 모색*

마 승 혜
(동국대)

1. 서론

기계번역 및 기계번역 결과물의 포스트 에디팅 전략에 관한 국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트 에디팅이란 “기계번역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 번역을 편집 및 수정하는 과정”(Allen 2003: 296)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포스트 에디팅 관련 연구는 주로 ‘기술적 텍스트(technical text)’¹⁾ 포스트 에디팅에 국한된 경향이 있다. “포스트 에디팅은 은유적 표현이나 용어 변화가 많지 않은 기술적 문서에서 주로 사용”(Koglin 2015: 129)되어 문장 길이가 길

* 본고는 한국외대에서 개최된 2018년 제 18회 ITRI-GSIT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을 바탕으로 확대·발전시킨 것임.

1) 기술적 텍스트란 사용자 매뉴얼(user manual), 기술 명세서(technical specifications), 의료, 법률, 특허 문서 등을 말한다.

거나 은유 표현이 많은 텍스트를 기계번역 하여 포스트 에디팅하거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계번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포스트 에디팅 수요가 늘어나며 포스트 에디팅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Koglin 2015). 따라서 이제는 기술적 텍스트에서 벗어나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적용 범주를 확대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은유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신문 기사²⁾의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정보 전달 텍스트로 분류된 신문기사 은유 표현 포스트 에디팅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은 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은유를 포함한 신문기사 장르도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이 처음부터 인간이 번역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결론만 도출되었을 뿐, 어떠한 은유 표현을 어떻게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다. 뉴마크(Newmark 1988)의 연구에 따르면 은유 표현도 표현의 정형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신문기사에서 어떠한 종류의 은유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지 분석해보고, 특정 부류의 은유 표현은 어떠한 포스트 에디팅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관련 선행 연구

2.1 신문기사 포스트 에디팅관련 선행연구

신문기사에는 은유적 표현이 비교적 많이(텍스트의 약 15%) 등장하며(Steen et al. 2010) 기계번역 시 포스트 에디팅이 필요한 텍스트이다. 선행연구에서는(Carl et al. 2011; Koglin 2015) 신문기사의 경우 기계번역 후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수작업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포스트 에디팅의 주요 목적은 작업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투여하

2) 본고에서 ‘신문기사’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칼럼이나 설득적 텍스트에 속할 수 있는 사설을 제외한 정보전달 텍스트인 일반 기사를 말한다.

는 노력의 양이 많을수록 포스트 에디팅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크링즈(Krings 2001)는 포스트 에디팅 시 요구되는 노력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시간적 노력, 기술적 노력, 인지적 노력), 이 노력 정도에 따라 포스트 에디팅이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커글린(Koglin 2015)은 포스트 에디팅을 하다가 잠시 멈추는 ‘멈춤(pauses)’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네 가지 요소(시간적 노력, 기술적 노력, 인지적 노력, 멈춤)를 기준으로 신문기사 은유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시 투여된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였고, 처음부터 수작업으로 번역한 경우와 비교하였다.

시간적 노력(temporal effort)은 번역 및 포스트 에디팅 시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인간 번역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교하는 것이다(Krings 2001; Tatsumi 2009; Specia 2011). 기술적 노력(technical effort)은 포스트 에디팅 시 기계번역 수정을 위해 얼마나 많이 삽입(insertions), 삭제(deletions), 재배열(reordering)을 이행하는지 측정하여 파악하는 것이고, 인지적 노력(cognitive effort)은 측정하기 가장 까다로운 요소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로그(Translog)³⁾ 또는 아이트랙커(eye tracker)⁴⁾를 사용하여 인지적 노력이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엘브즈(Alves 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삼각측량(data triangulation) 방법을 동원하여 아이트래킹(eye-tracking) 및 키로깅(key-logging) 데이터를 회상적 사고발화법(retrospective think-aloud protocols)과 연결하여 투여된 인지적 노력 정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브라이언(O'Brien 2007)은 포스트 에디팅 시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적, 기술적 노력과 ‘멈춤’을 연계하여 분석해야 좀 더 신뢰도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에디팅 시 ‘멈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를 측정하고, 이 모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은유적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텍스트는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과 달리, 신문기사의 경우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이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3) 트랜스로그는 사용자의 쓰기 및 번역 과정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4) 아이트랙커는 사용자의 눈이 어디를 보는지, 어디를 건너뛰는지, 어디를 다시 보는지 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수작업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 원문에 등장하는 은유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계번역을 통해 은유적 표현의 일차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은유 표현을 상세히 분류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은유 표현의 종류에 따라 포스트 에디팅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른 포스트 에디팅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문기사의 은유 표현을 좀 더 상세히 분류하여 종류에 따라 어떠한 포스트 에디팅 전략이 적절할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2.2 은유 표현 분류

은유는 셰익스피어가 ‘온 세계는 하나의 무대이다’라고 쓴 것처럼 낱말을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이정화 외 2003). 은유에 대해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은 인지언어학적으로 접근하며, 인간의 개념 체계가 은유적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한다. 즉, ‘x는 y다’라는 방식으로 인간의 개념이 표현되고, 근원 영역(source domain)인 y는 목표 영역(target domain)인 x를 설명하는 개념이 된다. 예를 들어, ‘시간은 돈(TIME IS MONEY)’이라는 개념적 은유에서는 ‘돈’이라는 근원영역이 ‘시간’이라는 목표영역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 설명하는 ‘돈’이라는 근원영역 개념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표 1〉 ‘시간은 돈’ 은유와 관련된 근원영역 하위 표현

TIME IS MONEY
1. You're wasting my time.
2. I don't have the time to give you.
3. That flat tire cost me an hour.
4. I've invested a lot of time in her.

(Lakoff & Johnson 1980: 3)

위의 표에서와 같이 ‘시간’은 ‘돈’처럼 ‘낭비(wasting)’할 수 있고, ‘소유(have)’하거나 ‘주는 것(give)’이 가능하며, ‘소비(cost)’하거나 ‘투자(invest)’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돈’과 관련된 개념적 표현으로 ‘시간’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듯 목표 영역을 설명하는 근원 영역에 오는 표현들을 언어적으로 세분화하고 분류하여 적절한 은유 표현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뉴마크(1988)에 따르면, 은유 표현을 사용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지적(cognitive) 차원에서 인물, 사물, 상황, 과정, 행동 등을 묘사할 때 물리적 언어(physical language)를 사용하여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factual component)이고, 두 번째는 미학적(aesthetic) 차원에서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여 흥미나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emotive component)이다. 따라서 은유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좀 더 정확하고 감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뉴마크(1988)는 근원 영역에 올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정형화된 정도를 기준으로 6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죽은 은유(dead metaphor)’, ‘상투적 은유(cliché metaphor)’, ‘일반 은유(stock or standard metaphor)’, ‘변형된 은유(adapted metaphor)’, ‘신조 은유(recent metaphor)’, 그리고 ‘창의적 은유(original metaphor)’로 분류한 것이다.

‘죽은 은유’란 표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은유 표현의 ‘이미지’⁵⁾가 잊힌 경우이다. 즉, 은유 표현인지 자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정형화되어 흔히 사용되어온 표현으로, 주로 공간이나 신체 일부 등을 사용한 은유 표현을 말한다. 예를 들어, ‘on top of’, ‘at the mouth of the river’, ‘in the field of engineering’, ‘the arm of the chair’의 사례처럼 top, mouth, field, arm과 같은 단어를 ‘죽은 은유’라 한다.

‘상투적 은유’란 이미지는 남아있지만, 미학적 기능은 상실하였고 은유 표현에 내포된 의미만 전달하는 기능(connotative function)만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The Country School will in effect become not a backwater but a breakthrough in educational development which will set trends for the future’에

5) 여기서 ‘이미지’란 “은유 표현이 불러일으키는 그림(the picture conjured up by the metaphor)”(Newmark 1988: 105)을 말한다.

서 ‘backwater’, ‘breakthrough’, ‘set trends’와 같은 표현들을 말한다. 그 밖에도 ‘a jewel in the crown’이나 ‘a transparent lie’와 같은 표현도 이에 해당한다.

‘일반 은유’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 효과”(emotional warmth)(Newmark 1988: 108)도 있어서 미학적 기능을 유지하는 표현을 말한다. 특정 상황이나 상태를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 have to admit that they keep the world and society going-they oil the wheels’에서처럼 ‘oil the wheels’ 또는 ‘keep the pot boiling’, ‘down the slippery slope’와 같은 표현들이 있다. 은유 표현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뉴마크는 ‘상투적 은유’와 ‘일반 은유’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겹치기도 한다고 언급한다.

‘변형된 은유’는 저자 또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기존의 은유 표현을 변형시켜 ‘일반 은유’의 정형성을 파괴한 표현을 말한다. 예를 들어, ‘the ball is in their court’는 ‘일반 은유’이지만, ‘the ball is a little in their court’는 ‘변형된 은유’이다.

‘신조 은유’는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는 ‘은유적 신조어(metaphorical neologism)’를 말한다. 예를 들어, 비속어(slang)에서 ‘sick’이라는 단어가 ‘good, wonderful’의 의미를 담고 사용된다든지, 컴퓨터 분야에서 ‘port’가 ‘주변 기기 접속 단자’의 의미로 사용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다.

‘창의적 은유’는 말 그대로 저자 또는 화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새롭게 창조한 은유표현을 말한다. 개인의 스타일과 특성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I am the dog end of every day’ 또는 ‘a forest of fingers’와 같은 표현이 그 예이다.

이처럼 은유 표현은 크게 6가지 범주로 분류·세분화되어 있지만, 범주들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기보다는 정형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될 수 있으며, 특히 ‘상투적 은유’와 ‘일반 은유’의 경우 그 경계 부분에 있는 표현은 양쪽 범주에 모두 속할 수도 있다.

〈그림 1〉 표현의 정형성에 따른 은유표현 배열



그렇다면 신문기사에서는 어떠한 은유 표현이 주로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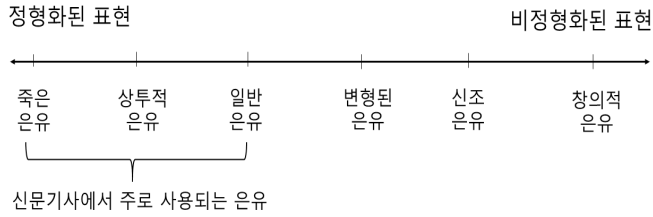
2.3 신문기사 은유 표현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주요 신문에서 사용되는 언어 및 표현은 격식을 갖춘(formal) 언어이고, 표준 영어(standard English)이다”(Steen et al. 2010: 43).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문에서 이를 전달하는데 있어 은유 표현은 핵심을 전달하는 표현으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Kennedy 2000), 매우 효과적인 언어적 도구(linguistic tool)이자 담화 수단(discursive device)이기도 하다(Trčková 2011).

그런데 신문에서는 특수 용어, 새로운 복합어, 신조 은유, 의미가 애매한 용어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highly infrequent)(Steen et al. 2000: 46). 정형화(conventionalized)되지 않은 은유 표현들은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그 의미가 익숙해져서 정형성을 가지게 되어야 신문에 등장하게 된다(Newmark 1981: 89; Croft & Cruse 2004: 105).

따라서 은유 표현 중에서 신문기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은유 표현은 상대적으로 정형성이 높은 ‘죽은 은유’, ‘상투적 은유’ 및 ‘일반 은유’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변형한 ‘변형된 은유’나 새롭게 등장한 ‘신조 은유’ 또는 개인이 창조해낸 ‘창의적 은유’는 그 은유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해 일반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용 빈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림 2〉 신문기사 은유 표현



이렇듯 신문기사에서는 ‘죽은 은유’, ‘상투적 은유’ 및 ‘일반 은유’가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신문기사에서 정형화되고 격식성 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형성이 높은 이 세 타입의 은유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고, 은유 표현의 번역방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아도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뉴마크(1981)의 은유 번역 방식 분석⁶⁾을 살펴보면, ‘죽은 은유’ 및 ‘상투적 은유’의 경우, 은유의 개념 및 그 맥락에 대한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원문의 은유 이미지를 그대로 번역문에 재현(reproducing)하는 번역 방식을 택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텍스트에서 은유 번역 방식을 연구한 선행 연구(신진원, 박기성 2011)를 살펴보면, 번역 시 원문 은유 표현과 일치하도록 재현하는 전략을 가장 빈번하게(68%)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텍스트에서 현상이나 지식이 문화 간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은유 표현, 즉 정형화된 은유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사잡지 텍스트에서 은유 번역 방식을 연구한 선행연구(이승아, 배지연 2011)에서도 나타난다. 연구결과 원문에 사용된 은유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는 전략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제·정치·기업·사회와 관련된 이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에서는 일반 독자들과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은유 표현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원문의 은유를 재현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은유 표현에 대한 효율적인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전략을 모색해보고 기계번역의 외연 확대 방

6) 은유 번역 방식에 대한 상세 설명은 2.4 은유 번역 방식 참조.

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4 은유 번역 방식

뉴마크(1981: 88-91)는 일반적인 은유 번역 방식으로 7가지 방식과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 ‘원천 언어(source language, SL)의 동일한 이미지를 목표 언어(target language, TL)로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reproducing the same image in the TL)’이다. 영어에서 프랑스어로의 번역에 적용해 본 사례를 소개하며, ‘ray of hope’를 ‘rayon d’espoir’⁷⁾로 번역하거나 ‘cast a shadow over’를 ‘jeter une ombre sur’⁸⁾로 번역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번역 방식은 원천 문화와 목표 문화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은유 표현을 번역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

둘째, ‘SL 이미지를 일반적인 TL 이미지로 대체하는 방식(replacing the image in the SL with a standard TL image)’이다. 이 방식을 적용해 본 사례로 ‘jump into the lion’s mouth’를 ‘se fourrer dans la gueule du loup’로 번역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다시 영어로 역번역 해보면 ‘to get into the mouth of the wolf’가 되는데, 영어에서는 ‘사자’가 ‘위험’이라는 개념을 상징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할 때 ‘jump into the lion’이라고 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늑대’가 ‘위험’이라는 개념을 상징하기 때문에 프랑스어에 적합한 이미지로 대체하여 번역한 것이다.

셋째, ‘은유를 직유(simile)로 바꾸어 번역하는 방식(translating metaphor by simile)’이다. 이 방식을 통해 은유 표현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Ces zones cryptuaires où s’élabore la beauté’라는 표현은 영어로 직역하면 ‘the crypt areas where beauty is manufactured’가 되는데, 여기서 ‘the crypt areas(지하실)’를 ‘the crypt-like areas(지하실과 같은 곳)’라고 직유로 전환하여 직접적인 은유 표현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7) 이 표현의 역번역은 원문과 동일한 ‘ray of hope’이다.

8) 이 표현의 역번역은 원문과 동일한 ‘cast a shadow over’이다.

넷째, ‘은유를 직유로 전환하고 의미를 추가하여 번역하는 방식(translating metaphor by simile plus sense)’이다. 이 방식은 은유를 번역하였을 때 다수의 독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하는 번역 방식이다. 예를 들어, ‘tout un vocabulaire moliéresque’는 직역하면 ‘a whole repertoire of Molière(몰리에르의 레퍼토리)’가 되는데, 이를 ‘a whole repertoire of medical quackery such as Molière might have used(몰리에르가 사용했을 것 같은 돌팔이 짓에 대한 레퍼토리)’라고 직유와 의미 추가를 함께 사용하여 번역하면 몰리에르가 인물을 희화한 프랑스 극작가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이 은유 표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은유 표현의 의미만 전달하는 방식(converting metaphor to sense)’이다. 은유 표현의 의미를 추출하여 전달하는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은유 표현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는 사실적 요소(factual component)도 있고 또한 감정적 요소(emotive component)도 있기 때문에 의미만 전달할 경우 은유 표현의 생생함(liveliness)은 축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he is as good as gold’라는 표현을 독일어로 ‘Sic ist sehr artig(she is very good)’라고 의미만 전달하여 번역하면 표현의 감정적(또는 미학적) 요소가 축소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은유 표현을 아예 삭제하는 방식(deleting)’이다. 은유 표현이 불필요한 경우, 원문의 은유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문학작품과 같은 표현적 텍스트나 연설문과 같은 설득적 텍스트가 아니라면, 번역자가 작가의 의도를 고려해보고 텍스트 내에서의 중요도를 분석한 후 번역 시 ‘삭제’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텍스트 내에서 은유 표현의 기능이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정당성이 부여될 때 가능한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방식은 ‘은유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고 의미를 추가하는 방식(combining the same metaphor with sense)’이다. 예를 들어, 원문의 은유를 그대로 번역하여 그 결과 ‘the tongue is a fire’라는 번역문이 도출된 경우, 그 표현 뒤에 ‘a fire ruins things; what we say also ruins thing’라고 덧붙여서 ‘fire’의 이미지도 유지하고 이에 덧붙여 내포된 의미를 설명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맥락에서 유용할 수 있다.

3. 신문 기사 은유 표현 포스트 에디팅 전략 모색

지금까지는 번역 전략을 결정할 때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독자의 수용성(또는 가독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논의해왔다. 그러나 기계번역 후 포스트 에디팅을 하여 최종 번역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기준 외에도 효율성, 즉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지 또한 고려해야 할 기준 중 하나가 된다. 결국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의 주목적은 좀 더 효율적으로 다량의 텍스트를 번역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문기사의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은유 표현 번역 시 어떠한 포스트 에디팅 방식이 효율성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또한 충실성과 가독성도 충족시킬 수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자.

신문기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은유에 대해 앞서 논의하며, 신문기사에서는 정형성이 높은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따라서 정형성을 기준으로 볼 때 ‘죽은 은유’, ‘상투적 은유’ 및 ‘일반 은유’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은유에 대해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하는 방법을 은유 타입별로 살펴보자.

3.1 죽은 은유 및 상투적 은유

번역 방식에 대해 논하며 뉴마크(1988)는 ‘죽은 은유’의 경우 대부분 원문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즉, 원문의 이미지를 그대로 번역에 옮기는 것이다. ‘상투적 은유’ 또한 목표 언어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높고, 동일한 맥락을 공유한다면 원문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시사 텍스트에서 은유 번역 방식을 연구한 선행연구(이승아, 배지연 2011)에서도 볼 수 있다. 시사 텍스트에서 은유를 번역한 방식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방식이 원문을 그대로 재현한 방법이었으며, 연구에서 소개한 사례⁹⁾를

9) 사례 ①과 사례 ②는 선행연구(이승아, 배지연 2011)에서 소개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ST는 *Newsweek*지에 실린 영어 원문 기사 중 일부이고, TT는 『뉴스위크 한국판』의 한국어 번역 기사이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①)

(ST) Private equity firms are stuffed with very smart people.

(TT) 사모펀드 기업은 똑똑한 기업회생 전문가들로 넘쳐난다.

‘stuffed with’라는 ‘상투적 은유’에 대해 번역문에서는 ‘넘쳐난다’라고 하였다. 이 문장을 기계번역¹⁰⁾ 해보면, ‘사모 펀드 회사들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가 되고, 원문에 충실하게 그대로 직역하여 ‘채워져 있다’라고 해도 의미 전달 및 가독성에 문제가 없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②)

(ST) ... and just before Lehman Brothers collapsed.

(TT) 리먼브러더스의 붕괴가 임박했던...

‘collapsed’라는 ‘상투적 은유’에 대해 번역문에서는 ‘붕괴’라고 하였다. 이 문장을 기계번역해 보면,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지기 직전에..’가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문에 충실하게 그대로 직역하여 ‘collapse’를 ‘무너지다’라고 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죽은 은유’ 및 ‘상투적 은유’는 뉴마크가 제안한 것처럼 원문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전략을 적용해도 무방하고, 이는 기계번역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일반 은유’의 경우 원문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기계번역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반 은유’의 경우 어떠한 전략이 가장 효율적일지 살펴보자.

3.2 일반 은유

뉴마크(1988)는 ‘일반 은유’ 번역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번역 전략은 7가지 번역 전략 중 두 번째로 소개한 ‘SL 이미지를 일반적인 TL 이미지로 대체 (replacing the image in the SL with a standard TL image)’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경제 텍스트의 은유 번역 방식을 연구한 선행연구(신진원, 박기성

10) 본고에서 기계번역은 ‘구글번역’ 결과물이다.

2011)를 보면, 이 ‘대체’ 방식과 은유를 ‘삭제’해버리는 방식은 번역자의 추가적 노력 및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방식이라고 언급한다. 즉, 원문에 상응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은유 표현을 TL에서 찾아서 대체하는 데에는 그 만큼 번역자의 시간적·인지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Gay marriage is camel’s nose under the tent’¹¹⁾에서 이에 상응하는 TL 이미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camel’s nose under the tent’라는 은유 표현의 사전적 의미가 ‘텐트 아래의 낙타 코’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다음 그 내포된 의미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¹²⁾라는 것을 파악해야 하며, 그 다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TL 이미지를 생각하는 인지적 노력 끝에 ‘동성 결혼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우리말 은유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삭제’ 방식 또한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원문에서 은유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은유가 맥락상 중첩되는지, 은유를 삭제하더라도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지 등 번역자가 고려해야 할 측면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두 전략은 번역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일반 은유’를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은유의 기능을 잘 살리는 포스트 에디팅 방식은 무엇일지, 그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번역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보았다.

4. 설문조사

4.1 설문 대상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일반 은유’에 대해 가장 적합한 기계번역 포스트 에

11) 이 은유 표현은 “Gay Marriage Is ‘Camel’s Nose Under Tent To Undermine Christian Foundation of Our Nation’”(Chapman 2016)에서 발췌한 문장으로, 전문 내용은 동성 결혼 허용을 시작으로 나라의 기독교적 근간이 훼손되는 더 큰 일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 “The camel’s nose is a metaphor for a situation where the permitting of a small, seemingly innocuous act will open the door for larger, clearly undesirable actions” (Wikipedia)

디팅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번역학을 연구하는 번역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해준 연구자는 총 21명이었고, 모두 통번역학 박사과정에 있거나 통번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다.

4.2 설문지

4.2.1 설문지 작성 배경

설문을 위해 살펴본 은유 표현은 ‘일반 은유’, 그 중에서도 ‘동물’과 관련된 ‘일반 은유’이고, 동물 관련 일반 은유 세 개를 실제 영어권 신문 기사에서 추출하여 뉴마크의 은유 번역 방식을 적용하여 포스트 에디팅 한 결과물을 제시한 후, 포스트 에디팅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뉴마크의 7가지 번역 방식 중 ‘SL 이미지를 일반적인 TL 이미지로 대체’하는 방식과 ‘삭제’ 방식은 번역자의 적극적인 개입, 즉 더 많은 시간적·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 방식을 제외한 5가지 번역 방식을 적용하여 포스트 에디팅하고, 은유 표현의 목적(사실적 내용 전달+감정적·미학적 효과)에 부합하면서도 포스트 에디팅의 목적(효율성)에도 부합하는 방식을 선택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동물과 관련된 은유 표현을 선정한 이유는 “잘 알려진 동물의 특성(non-human attributes)을 통해 인간의 일반적인 특징(general human character traits)을 파악하는데 동물 은유가 사용”(Lakeoff & Turner 1989)되는데, 이 동물 은유가 인물과 사건을 전달하는 신문기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4.2.2 설문지 구성¹³⁾

설문지는 우선, 설문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제 설문 문항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시 유의사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설문이 일반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포스트 에디팅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적어 강조하였다.

13) 설문지 전문은 ‘첨부’ 참조.

-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의 주요 목적: 번역 시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대량의 텍스트를 빠르게 번역,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은유 표현의 주요 목적: 단순한 의미 전달 뿐만 아니라 미학적 효과와 더불어 의미를 전달하여 더 강한 인상을 남김.

다음, 실제 설문 문항으로는 ‘a red herring’, ‘kangaroo courts’, ‘a white elephant’라는 세 개의 동물 은유가 사용된 실제 신문기사의 문장을 추출하여, 각 은유 표현을 기계번역하고, 기계번역 결과물에 5가지 번역 전략을 적용하여 포스트 에디팅한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5가지 포스트 에디팅 결과물 중 위의 두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물을 선택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두 번째 부분인 실제 설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번역자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두 전략을 제외한 5가지 번역 방식을 적용하여 각각 기계번역 후 포스트 에디팅을 실시한 옵션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동물 은유인 ‘a red herring’의 경우 원문과 기계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ST) “The income gap cleaving society between the rich and the rest may, in fact, be **a red herring**.”

(MT)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 절단 사회는, 사실, **붉은 청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은유 번역 방식 5가지를 적용하여 포스트 에디팅 한 옵션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원문 이미지를 그대로 번역하는 ‘재현’ 방식이고, 이는 기계번역에 별도의 포스트 에디팅을 추가하지 않은 방식이다.

① 기계 번역물 그대로 놔두기

(MT-PE)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 절단 사회는, 사실, **붉은 청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유’ 방식을 적용하여 포스트 에디팅 한 방법이고, 기계번역을 통해 그대로 재현된 은유를 직유로 전환하여 포스트 에디팅 하였다.

② 직유법으로 번역하기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 절단 사회는, 사실, **붉은 청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유+의미전달’ 방식을 적용하여 포스트 에디팅 한 방법이고, 기계번역을 통해 그대로 재현된 은유를 직유로 전환 후 의미를 추가하였다.

③ 직유법+의미전달 방법으로 번역하기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 절단 사회는, 사실, **붉은 청어처럼 주요 이슈에서 관심을 띤 데로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은유 표현은 빼고 의미만 전달’한 방식을 적용하여 포스트 에디팅 하였고, 기계번역을 통해 그대로 재현된 은유를 삭제한 후 그 의미만 남겨둔 것이다.

④ 은유 표현을 빼고 의미만 전달하기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 절단 사회는, 사실, **주요 이슈에서 관심을 띤 데로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식은 ‘은유+의미전달’ 방식을 적용한 것인데 기계 번역된 은유 표현을 그대로 두고 의미를 추가한 방식으로 포스트 에디팅 한 것이다.

⑤ 은유표현 그대로 두고 의미 추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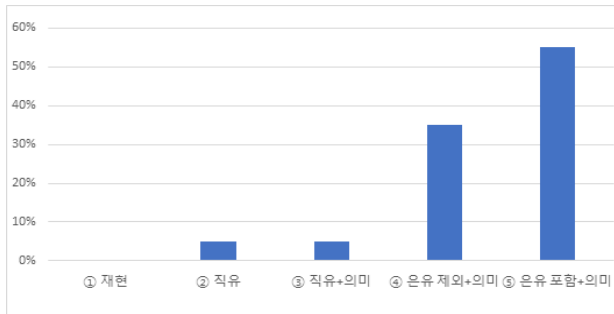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 절단 사회는, 사실, **붉은 청어, 즉 주요 이슈에서 관심을 띤 데로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개의 동물 은유에 대해 각각 다섯 가지 포스트 에디팅 방식을 적용한 결과물이 설문조사에서 제시되었고, 응답자들은 그 중에서 은유의 목적과 포스트 에디팅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포스트 에디팅 방식을 선택하였다.

4.3. 설문 결과 및 함의

설문에 참여한 21명의 번역학 연구자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원문의 동물 은유 표현을 그대로 ‘재현’한 ①번, 즉 기계 번역 결과물을 그대로 놔두는 옵션을 선택한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고, 21명 중 1명(5%)은 ②번인 ‘직유법으로 번역하기’를 선택하였고, 1명(5%)은 ③번인 ‘직유법+의미전달’을 선택하였고, 7명(33%)은 ④번인 ‘은유 표현을 빼고 의미만 전달하기’를 선택하였으며, 12명(57%)은 ⑤번인 ‘은유표현 그대로 두고 의미 추가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림 3〉 설문조사 결과



결과에서 짐작해볼 수 있듯이, 본 설문 조사에서는 은유를 제외하고 의미만 전달하는 방식이나 기계 번역된 은유 표현에 의미를 추가하는 방식, 이 두 방식을 번역학 연구자들은 은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포스트 에디팅을 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은유 표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익숙해진 ‘죽은 은유’나 ‘상투적 은유’가 아니기 때문에 은유를 번역에 그대로 소개할 경우 의미전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은유를 제외하고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독자의 가독성에 좀 더 중점을 둔 의견이다. 한편으로는,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을 할 경우 다량의 텍스트를 빠르게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은유는 그대로 둘지 아니면 삭제하고 의미만 전달할지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번역 된 은유 옆에 의미를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포스트 에디팅의 효율성에 좀 더 중점을 둔 의견이다.

또 한편으로는 은유를 사용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살리기 위해 은유를 그대로 두고 의미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처럼 판이하게 다른 두 문화 간에 은유 표현을 번역하여 전달할 경우 은유를 의미로 축소하여 독자가 번역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자국화(domestication)’ 전략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원문을 그대로 재현하여 이것이 번역된 것임을 드러내는 ‘이국화(foreignization)’ 전략만 사용할 수는 없고, 그 둘을 적절히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Shi 2014)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은유’ 포스트 에디팅에서도 이 둘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여 ⑤번 방식처럼 ‘은유+의미’ 전략을 택하는 것이 은유의 목적과 포스트 에디팅의 목적에 모두 부합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다.

최근 들어, 국내 신문기사에서 외국 기사를 인용 보도할 경우 ‘일반 은유’를 무조건 의미로 축소하여 전달하기 보다는 다소 생소하더라도 은유를 유지하며 그 의미와 함께 전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South China Morning Post*지에서 미국의 감세안에 대해 이를 ‘elephants in the room’이라고 지칭하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국내 신문에서는 이를 인용보도하며 은유를 그대로 번역하고 그 옆에 의미를 추가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the three issues have become **elephants in the room** for Xi and his team formulating China’s economic policies.” (Cai 2017; 필자 강조)

“SCMP는 “미국의 감세안은 이번 회의에서 ‘**방 안의 코끼리**’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법인세 인하안이 시행되면 중국은 자본 유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방 안의 코끼리**’는 ‘**아무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모두 인지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다.” (변희원 2017; 필자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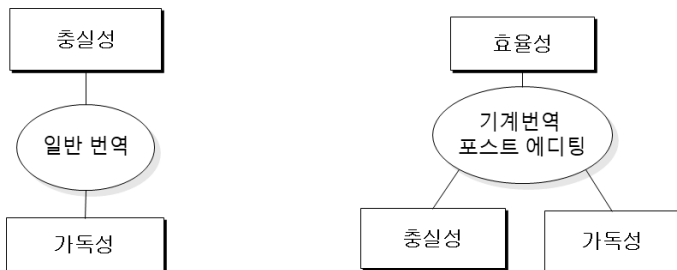
이렇듯 국내 독자에게 다소 낯선 은유라도 ‘은유+의미’ 전략을 활용하여 낯선 은유를 소개하다보면 독자는 다른 문화권의 표현과 개념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 의미 추가 없이 은유 표현만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cash cow’라는 표현은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이라는 개념이 이제 다수의 독자들에게 익숙해진 상황이라 신문에서 추가적인 의미 설명 없이 은유 표현만 사용하기도 한다.

“BNK투자증권 신건식 연구원은 “CJ건설이 캐쉬카우의 역할이 가능하고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며 “CJ대한통운 입장에서는 현금유출이나 발행주식수 변동 없이 연간 200~300억원의 영업이익이 계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파이낸셜 뉴스 2017/12/25, 필자 강조)

요컨대,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일반 은유’ 특히 동물과 관련된 은유 표현의 경우, 뉴마크는 SL의 은유와 등가를 이루는 TL 은유를 찾아서 대체하는 번역 방식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제안했지만, 이는 번역자의 시간적·인지적 노력이 좀 더 요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강조되는 포스트 에디팅에서는 기계 번역된 은유 표현에 의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포스트 에디팅을 이행하여 은유 표현을 번역하는 방안이 더 적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번역에서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독자 가독성’을 두 축으로 놓고 번역 전략을 고민했다면,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에서는 이 두 가지 축 외에 ‘효율성’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일반 번역 및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시 고려해야 할 요소



5. 결론

지금까지 신문기사 은유 분석, 은유 번역, 은유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에 관해 논의해보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전통적 번역에서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독자를 위한 가독성’이 번역 전략 결정을 위한 기준이었다면, 포스트 에디팅에서는 ‘효율성’도 전략 결

정을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은유표현 번역 시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제안했던 전략이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시에는 추가되는 시간적·인지적 부담 때문에 그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효율성을 고려하여 포스트 에디팅을 하다보면 포스트 에디팅 결과물이 다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포스트 에디팅의 경우,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즉 최종 결과물의 품질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고(신지선 2017) 포스트 에디터는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에디팅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뢰인은 의뢰 시 요청에 따라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계번역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계번역으로 처리하는 텍스트의 범주도 더욱 확대되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 에디팅 하는 전략 및 연구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이 간단하고 은유 표현이 없는 기술적 문서에 국한되어 왔다면 이제는 은유가 포함된 좀 더 복잡한 문서로 이를 확대·적용해볼 수 있고, 한 텍스트에서 은유가 15%정도를 차지하는 신문기사는 기계번역 확대·적용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적절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정형화된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신문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은유 표현은 ‘죽은 은유’, ‘상투적 은유’, ‘일반 은유’인데, 그 중 ‘죽은 은유’와 ‘상투적 은유’는 그 개념이 독자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기계번역만으로도 충분히 가독성을 지닐 수 있고, ‘일반 은유’의 경우 은유의 의도 및 기능을 살리며 동시에 효율성도 고려하여 포스트 에디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 및 국내 신문에서 실제 채택하고 있는 전략을 고려하여 기계번역 된 은유에 그 의미를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해 보았다.

물론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는 한계점도 많이 있다. 일단, 포스트 에디팅 전략에 관한 설문에 참여한 번역 연구자들이 모두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규범적(normative) 또는 처방적(prescriptive) 결론에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포스트 에디터 및 연구자도 있을 것이고, 이 방식이 모든 ‘일반 은유’ 포스트 에디팅에 적용하기 힘든 측면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은유 표현 번역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계번역에 관한 학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다수의 번역학자들이 기계번역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교육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번역 연구와 교육의 현장에 있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서 번역 전략을 도입할 때, 전혀 새로운 전략을 고안하여 만들어내기 보다는 기존의 번역 전략을 차용하여 거기서 출발 및 발전해나가는 경우가 많다.¹⁴⁾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분야도 기존의 번역학 연구와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분야로 생각하고, 선뜻 이 분야 연구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모색한 바와 같이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전략도 기존의 번역 전략 연구가 출발점이 되어 더욱 확대·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번역학 연구가 시작되던 무렵에도 ‘더 나은 번역(better translation)’을 위한 전략 및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에 대한 실제 이행 및 연구가 이제 확대·발전하기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더 나은 포스트 에디팅(better post-editing)’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순미 (2002) 「영한번역에서의 은유법 연구」, 『번역학연구』 3(2): 81-111.
 신지선 (2017)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에서의 번역능력 재조명」, 『통번역학연구』 21(4): 51-71.
 신진원, 박기성 (2011) 「경제 텍스트에서의 은유 번역 사례 연구: 개념적 은유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129-155.
 이승아, 배지연 (2011) 「시사 잡지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표현의 번역 전략: 영한 병렬 코퍼스에 기반한 분석」, 『번역학연구』 12(3): 169-196.
 이정화 · 우수정 · 손수진 · 이진희 옮김 (2003) 『은유: 실용입문서』, 서울: 한국

14) 페미니스트 번역 전략이 도입될 때에도 전혀 새로운 번역 전략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번역 전략을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맞게 활용한 것이다(Wallmach 2006).

- 문화사. (Zoltán Kövecses.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P.)
- Allen, Jeffrey (2003) 'Post-editing' in Harold Somers (ed) *Computers and Translation. A translator's guid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97-317.
- Alves, Fábio (2003) 'Tradução, Cgnição e Cntextualidade: Triangulando a Interface Processo Produto no Desempenho de Tradutores Novos', *Translation, Cognition D.E.L.T.A.* 19: 71-108.
- Croft, William and Cruse D. Alan (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Press.
- Kennedy, Victor (2000) 'Metaphors in the News-Introduction', *Metaphor and Symbol* 15(4): 209-211.
- Koglin, Arlene (2015)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Cognitive Effort Required to Post-edit Machine Translated Metaphors Compared to the Translation of Metaphors', *Translation & Interpreting* 7(1): 126-143.
- Krings, Hans Peter (2001) *Repairing Texts: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Processes*, Kent, Ohio and London: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Lakeoff, George &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 of Chicago P.
- Lakeoff, George & Turner, Mark (1989) *More Than Cool-The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wmark, Peter (1981) *Approaches to Translation*, Oxford: Pergamon Press.
- Newm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London, New York: Prentice Hall International.
- O'Brien, Sharon (2007)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emporal and Technical Post-editing Effort',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2(1): 83-136.
- Shi, Xuedong (2014) 'The Strategy of Metaphor Translation: Domestication or Foreignization',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4(4): 766-770.
- Steen, J. Gerald, Dorst, G. Aletta, Herrmann, Berenike, Kaal, Anna,

Krennmayr, Tina & Pasma, Trijntje (2010) *A Method for Linguistic Metaphor Identification: From MIP to MIPVU*.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Trčková, Dita (2011) ‘Multi-Functionality of Metaphor in Newspaper Discourse’, *Brno Studies in English* 37(1): 139-151.

Wallmach, Kim (2006) ‘Feminist translation strategies: Different or derived?’, *Journal of Literary Studies* 22(1-2): 1-26.

<인터넷 자료>

변희원 (2017. 12. 20) 「“트럼프의 감세안은 방 안의 코끼리”... 대응책 고심하는 중국」, 『조선일보』 2018년 1월 3일 검색

이병훈 (2017. 12. 25) 「CJ대한통운, ‘글로벌 톱 5 물류기업’ 향해 거침없는 M&A」, 『파이낸셜 뉴스』 2018년 1월 3일 검색

Cai, Jane (2017. 12. 13) ‘Will Donald Trump be the elephant in the room at Xi Jinping’s big economic meeting?’, Available at <http://www.scmp.com/news/china/economy/article/2124149/will-donald-trump-be-elephant-room-xi-jinpings-big-economic>

Specia, Lucia (2011) ‘Exploiting Objective Annotations for Measuring Translation Post-editing Effort’, Available at <file:///C:/Users/pc/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0AHI99WC/EAMT-2011-Specia.pdf>

Tatsumi, Midori (2009) ‘Correlation between Automatic Evaluation Metric Scores, Post-editing Speed and Some Other Factors’, Available at <file:///C:/Users/pc/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FP50BABB/10.1.1.515.9696.pdf>

Chapman, Michael (2016. 03. 04) ‘Gay Marriage Is Camel’s Nose Under Tent To Undermine Christian Foundation of Our Nation’, Available at <https://www.cnsnews.com/blog/michael-w-chapman/carson-gay-marriage-camels-nose-under-tent-undermine-christian-foundation-our>

[첨부] 설문지

신문기사 속 은유표현(동물 관련 은유표현) 기계번역에 대한 효율적인 포스트 에디팅 전략 모색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계번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효율적인 포스트 에디팅 전략을 모색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의 주요 목적:** 번역 시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대량의 텍스트를 빠르게 번역,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 **은유 표현의 주요 목적:** 단순한 의미 전달 뿐만 아니라 미학적 효과와 더불어 의미를 전달하여 더 강한 인상을 남김.

위의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다음 신문 기사에 실제 등장한 동물 관련 은유표현(밑줄 친 표현)을 번역한 방법 중 은유표현의 기능도 살리며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MT-PE)의 주요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번역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 Source Text, 원천 텍스트
- MT: Machine Translation, 기계번역
- MT-PE: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 한편으로는 은유 표현의 기능도 살릴 수 있는 번역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설문
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밑줄 친 동물 은유 표현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MT-PE) 방법 중 은유표현의 기능과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의 주요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번역 방법에 (o)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a red herring, kangaroo court, a white elephant 세 개의 은유 표현에 관한 MT-PE)

(ST) “The income gap cleaving society between the rich and the rest may, in fact, be a **red herring**.”

(MT)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 절단 사회는, 사실, **붉은 청어**일 수 있습니다.

(MT-PE)

① 기계 번역물 그대로 놔두기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 절단 사회는, 사실, **붉은 청어**일 수 있습니다.

()

② 직유법으로 전환하기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 절단 사회는, 사실, **붉은 청어와 같을 수** 있습니다.

()

③ 직유법+의미전달 방법으로 전환하기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 절단 사회는, 사실, **붉은 청어처럼 주요 이슈에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

④ 은유 표현을 빼고 의미만 전달하기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 절단 사회는, 사실, **주요 이슈에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

⑤ 은유표현 그대로 두고 의미 추가하기

부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 절단 사회는, 사실, **붉은 청어, 즉 주요 이슈에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

(ST) Kangaroo courts were staged on football fields or basketball courts, where each of the accused was subjected to intense interrogation, often begging for mercy while a crowd howled for death.

(MT) 캥거루 법원은 축구장이나 농구 코트에서 열렸으며, 피고인 한 명이 강도 높은 심문을 받으며 종종 군중이 죽음을 울부짖는 동안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MT-PE)

① 기계 번역물 그대로 놔두기

캥거루 법원은 축구장이나 농구 코트에서 열렸으며, 피고인 한 명이 강도 높은 심문을 받으며 종종 군중이 죽음을 울부짖는 동안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

② 직유법으로 전환하기

캥거루 법원 같은 것은 축구장이나 농구 코트에서 열렸으며, 피고인 한 명이 강도 높은 심문을 받으며 종종 군중이 죽음을 울부짖는 동안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

③ 직유법+의미전달 방법으로 전환하기

캥거루 법원 같이 법을 무시한 인민 재판은 축구장이나 농구 코트에서 열렸으며, 피고인 한 명이 강도 높은 심문을 받으며 종종 군중이 죽음을 울부짖는 동안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

④ 은유 표현을 빼고 의미만 전달하기

법을 무시한 인민 재판은 축구장이나 농구 코트에서 열렸으며, 피고인 한 명이 강도 높은 심문을 받으며 종종 군중이 죽음을 울부짖는 동안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

⑤ 은유표현 그대로 두고 의미 추가하기

캥거루 법원, 즉 법을 무시한 인민 재판은 축구장이나 농구 코트에서 열렸으며, 피고인 한 명이 강도 높은 심문을 받으며 종종 군중이 죽음을 울부짖는 동안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

(ST) Dionisio Santiago, was fired last week for daring to suggest that an immense rehab facility funded by a Chinese billionaire was **a white elephant**.

(MT) 디오니시오 산티아고 (Dionisio Santiago)는 지난주 중국 억만 장자가 기금을 마련한 막대한 재활 시설이 **흰 코끼리**라고 제안하고 지난주에 해고되었다.

(MT-PE)

① 기계 번역물 그대로 놔두기

디오니시오 산티아고 (Dionisio Santiago)는 지난주 중국 억만 장자가 기금을 마련한 막대한 재활 시설이 **흰 코끼리**라고 제안하고 지난주에 해고되었다. ()

② 직유법으로 전환하기

디오니시오 산티아고 (Dionisio Santiago)는 지난주 중국 억만 장자가 기금을 마련한 막대한 재활 시설이 **흰 코끼리와 같다**고 제안하고 지난주에 해고되었다. ()

③ 직유법+의미전달 방법으로 전환하기

디오니시오 산티아고 (Dionisio Santiago)는 지난주 중국 억만 장자가 기금을 마련한 막대한 재활 시설이 **흰 코끼리처럼 돈만 많이 들고 쓸모 없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지난주에 해고되었다. ()

④ 은유 표현을 빼고 의미만 전달하기

디오니시오 산티아고 (Dionisio Santiago)는 지난주 중국 억만 장자가 기금을 마련한 막대한 재활 시설이 **돈만 많이 들고 쓸모 없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지난주에 해고되었다. ()

⑤ 은유표현 그대로 두고 의미 추가하기

디오니시오 산티아고 (Dionisio Santiago)는 지난주 중국 억만 장자가 기금을 마련한 막대한 재활 시설이 **흰 코끼리, 즉 돈만 많이 들고 쓸모 없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지난주에 해고되었다. ()

[Abstract]

Expanding the Scope of Machine Translation-Machine Translation Post Editing Strategies for Specific Metaphors in Newspapers

Mah, Seung-Hye
(Dongguk University)

The literature on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has mostly been concentrated on editing machine translations of technical texts such as user manuals or technical specifications. Texts that are rich with metaphorical expressions have been regarded as not suitable for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However, the improvements of machine translation and the growth of the post-editing market have gradually been expanding the machine translation applicable text scope from technical texts to newspapers although newspaper texts are characterized by a relatively high percentage(approximately 15%) of metaphors. A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post editing machine translation of newspaper texts requires less cognitive efforts than translating from scratch; therefore,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of newspaper texts is efficient and worth carrying out.

For systematic research about metaphors, Newmark(1988) distinguished six types of metaphors: dead, cliché, stock, adapted, recent and original. Metaphors frequently observed in newspapers are dead, cliché, and stock metaphors. For these metaphors, seven strategies of translating metaphorical expressions have been suggested(Newmark 1981): reproducing, replacing, simile, simile+sense, converting to sense, deleting, and combing the same metaphor with the sense. Among these strategies, reproducing strategy is quite acceptable for dead and cliché metaphors, which can be quickly processed by machine. For stock metaphors, faithful reproduction of the relatively new concept of the metaphor is too foreign for target readers to accept without any resistance. In this case,

the most applicable strategy for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turns out to be 'combing the same metaphor with the sense'. It is substantiated by survey results and actually translated metaphor in local newspapers.

▶ Key Words: Types of Metaphor, Metaphor Translation, Metaphors in Newspaper,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 주제어: 은유 타입, 은유 번역, 신문기사 은유표현,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마승혜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통번역학과 강사

shm213@gmail.com

관심분야: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번역 교육, 문학 번역

논문투고일: 2018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18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5일